

## 견학 및 시상식 안내

### Ⅰ 캠퍼스 투어

- 일시: 8월 5일(월) 11시 10분 ~ 12시
- 코스: 위당관 → 연희관 → 본관 → 중앙도서관  
→ 이한열 동산 → 박물관

"견학 인원이 제한되므로 미리 신청하세요!"

### Ⅱ 운동주기념관 및 언더우드기념관 견학

- 일시: 8월 7일(수) 11시 ~ 12시
- 1코스: 운동주기념관 → 언더우드기념관
- 2코스: 언더우드기념관 → 운동주기념관
- ※ 코스별 20명 이내 선착순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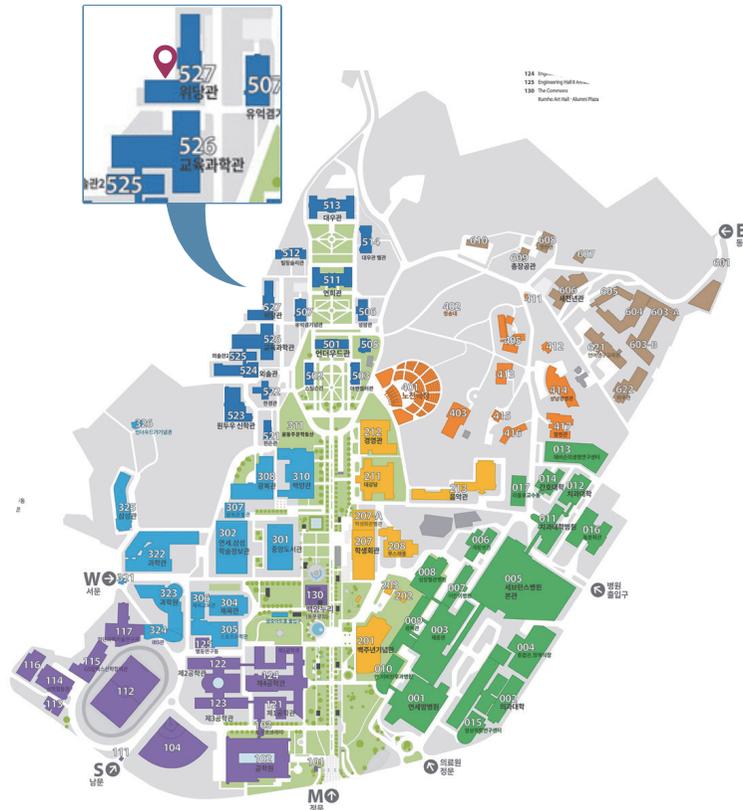
### Ⅲ 에세이 공모전 및 시상식

- 일시: 8월 9일(금) 11시 ~ 11시 30분
- 대상: 시민 및 학생(대학생 포함)
- 시상 내역
  - 서대문구청장상 1명 (상장 및 상금 30만원)
  - 문과대학장상 1명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우수상 3명(초·중·고등부) (상장 및 상금 15만원)
- 공모 내역
  - 주제: 기후 위기 시대, 우리가 할 일은?
  - A4 3매 이내(글림 10pt, 줄간격 160%)
  - 7월 31일(수) humanart@yonsei.ac.kr 제출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제출 필수
  - 연세대학교 인문예술진흥사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 찾아오시는 길

"차량 이용객에게는 주차권을 드립니다."

📍 연세대학교 위당관 대강당(B09)



"모든 참가자에게 예쁜 기념품을 드립니다."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인문예술진흥사업단

T. 02-2123-7920 humanart@yonsei.ac.kr

#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제4회 연세 인문학 캠프

2024. 8. 5(월) 8. 7(수) 8. 9(금) 09시~12시

연세대학교 위당관 대강당(B09)

청소년 및 시민(대학생 포함)

주 최

서대문구청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인문예술진흥사업단

주 관

국어국문학과 예비교육연구단,  
심리학과 예비교육연구단, 독불노 연합 예비교육연구단

PROGRAM

PROFILE

LECTURE

<b>1일차 / 8월 5일(월) 사회: 양순모 박사</b>	
09:00~09:20	<b>입교식, 환영사, 축사</b> 문과대학장 · 서대문구청장
09:20~10:10	<b>힉한 인문학, 디지털인문학</b> 박경우 나사렛대 교양대학 교수
10:20~11:10	<b>“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철학의 눈으로 보는 ‘나’와 기억</b> 조대호 연세대 철학과 교수
11:10~12:00	<b>캠퍼스 탐방</b> (위당관 → 박물관) 홍보대사 및 인솔자
<b>2일차 / 8월 7일(수) 사회: 송현주 교수</b>	
09:00~09:50	<b>나조차 몰랐던 내 마음의 비밀</b> 김민식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10:00~10:50	<b>“사랑이라구?” – 괴테와의 대화</b> 주일선 연세대 독문과 교수
11:00~12:00	<b>운동주 및 언더우드가 기념관 견학</b> 홍보대사 및 인솔자
<b>3일차 / 8월 9일(금) 사회: 조태린 교수</b>	
09:00~09:50	<b>애도의 길을 잃은 오늘 우리를 위해 – 제주 큰굿의 길치기</b> 김영희 연세대 국문과 교수
10:00~10:50	<b>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나뿐인가</b> 문정희 시인 (국립한국문학관장)
11:00~12:00	<b>수료식 및 시상식</b> 서대문구청장 · 문과대학장



시상식 후에 인문학캠프에 대한 퀴즈 후 정답자에게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박경우 교수**

나사렛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전문연구원, 중국 산둥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고전시가와 인공지능 활용 문학 데이터 분석, 한국문화이다.



**조대호 교수**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박사,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장, 서양고전철학회 회장, 서양고전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번역과 저서로는 『파이드로스』, 『형이상학』, 『아리스토텔레스, 에게해에서 만난 인류의 스승』, 『영원한 현재의 철학』 등이 있고 『차이냐는 클래스』, 『EBS의 클래스』 등에서 그리스 철학과 사상을 소개했다.



**김민식 교수**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미국 밴더빌트대학 박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신경과학센터 연구원, 미국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초빙교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학장과 한국 인지 및 생물심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30년간 인간의 기억과 주의, 의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80여 편의 논문 게재, 주요 저서로는 『더컨트롤러』, 『딱딱한 심리학』, 『심리학 프리즘』 등이 있다.



**주일선 교수**

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원장,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박사, 한국 괴테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Goethes Dilettantismus-Kritik』이 있고, 공저로는 『예술의 시대 – 예술의 발생과 해체, 그리고 진화』 등이 있다.



**김영희 교수**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구술 서사를 전공하였다. 주로 한국 신화와 옛 이야기, 구술 문화와 국가폭력 관련 구술 서사 등을 공동체와 젠더, 청취 연대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 구전서사의 부친살해』, 『구전이야기 연행과 공동체』, 『연행 주체란 누구인가』, 『밀양을 듣다』, 『전기, 밀양-서울』 등이 있다.



**문정희 시인**

국립한국문학관 관장, 동국대 석좌교수 및 고려대 미디어 문창과 교수를 역임했다. 시집으로는 『작가의 사랑』, 『오늘은 좀 추운 사랑도 좋아』외 다수가 있다. 영어, 프랑스역시집을 비롯 세계 11개국 언어로 번역된 14권의 시집이 있으며 현대문학상, 소설시문학상, 육사시문학상, 목월문학상 등을 수상하였다. 이외 스웨덴 <시카다상> 수상, 미국 아이오와대학 IWP, 프랑스 시인들의 봄 등 세계시인축제 초청 시인으로 참가하였다.

**힉한 인문학, 디지털인문학**

현재 인문학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인문학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3D로 제작된 디지털 캐릭터와의 대화 체험을 제공하여 디지털 인문학이 무엇인지 일반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강연에서는 디지털 인문학의 개념, 활용되고 있는 주요 기술들, 고전문학 분야에서의 활용 예시, 청중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설 속 캐릭터와의 대화가 마련된다.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철학의 눈으로 보는 ‘나’와 기억**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혜에 대한 사랑’ (philo-sophia)을 하나의 학문으로 만들 정도로 지혜를 사랑했다. 그런 그들에게도 가장 큰 관심거리는 ‘나’에 대한 것이었다. ‘나’에 대한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 ‘나’는 무엇인가? ‘나’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이 강연에서는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몇몇 인물의 사례를 통해 ‘나다운 삶’을 뒷받침하는 기억과 경험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나조차 몰랐던 내 마음의 비밀**

우리에게는 모두 마음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마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인간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자와 인지과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 본 강연에서는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마음의 주요 작동 원리를 소개함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마음과 행동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랑이라구?” – 괴테와의 대화**

사랑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내가 되는가? 그리고 나 자신이 되기 위해 사랑은 필요한가? 이 강연은 이런 물음에 관하여 독일의 작가 괴테와 대화를 나누는 시도의 시간이다. 괴테와의 대화를 통해 ‘다름의 중첩’이 지니는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애도의 길을 잃은 오늘 우리를 위해 – 제주 큰굿의 길치기**

오늘 우리의 삶은 수많은 상실로 들어차 있다. 우리는 이 상실을 들여다보고 애도할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시간의 수레바퀴에 갇힌 채 살아간다. 한국의 구술 전승 가운데 굿은 수많은 상실을 애도하는 의례로, 다양하고 입체적인 장면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제주 큰굿의 길치기를 통해 죽은 자의 넋을 저 너머의 세계로 보내면서 산 자들을 슬픔과 상실을 위로하는 굿의 애도 효과를 살펴보고 한다.

**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나뿐인가**

모든 나이는 눈부신 꽃이다. 그 중에서도 젊음은 그 자체로 빛나는 천부이며 영롱한 보석이다. 천부이며 보석인 스물세 살의 시인들이 쓴 시편들을 통하여 생명의 향기를 맛보고 나를 깊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본다. 나이를 숫자로 세면서 죽음에 쫓기면서 귀한 시간을 흘려보내기엔 인생은 너무 아름답다.